



육계 계열화 사업을 재조명한다

- ✦ 국내 육계 계열화 사업 변천사
- 김한웅 · 50
- ✦ 향후 계열업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도적 부문 - 사육 부문)
- 최충집 · 52
- ✦ 육계 계열화 사업 현황과 유통구조의 문제점
- 박희권 · 56
- ✦ 육계(肉鷄) 육종(育種) 분야의 변화와 미래
- 이상배 · 62
- ✦ 사료산업 발전과 육계산업의 변화
- 이상희 · 66

육계 계열화 사업을 재조명한다



김한웅 부장
본지 편집인

국내 육계
계열화 사업
변천사

육계 계열화 사업이란 삼장, 즉 농장과 공장(도계장), 시장(유통)을 통합해 운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육계산업을 이끌어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육계사육업은 작은 개체 그리고 값싸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편리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농가부업으로 사육되어왔으며,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국내에 육계 계열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물론 그 이전부터 '영육농산', '대한브로일러' 등이 70년대 초반 현대식 도계장시설을 갖추고 계열화 사업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지만 1983년도에 15개의 간이도계장이 허가되면서 국내에서의 육계산업은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WTO체제'의 출범으로 사육의 규모화, 전업농가 육성 등이 맞물리면서 육계 계열화 사업체계는 더욱 가속도를

붙이게 됐다.

특히 1985년경부터 농림부의 육계부문 계열화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계열화 사업은 육계산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1. 육계 계열화 사업의 유형

국내에서의 육계 계열화 사업은 수직계열화, 수평계열화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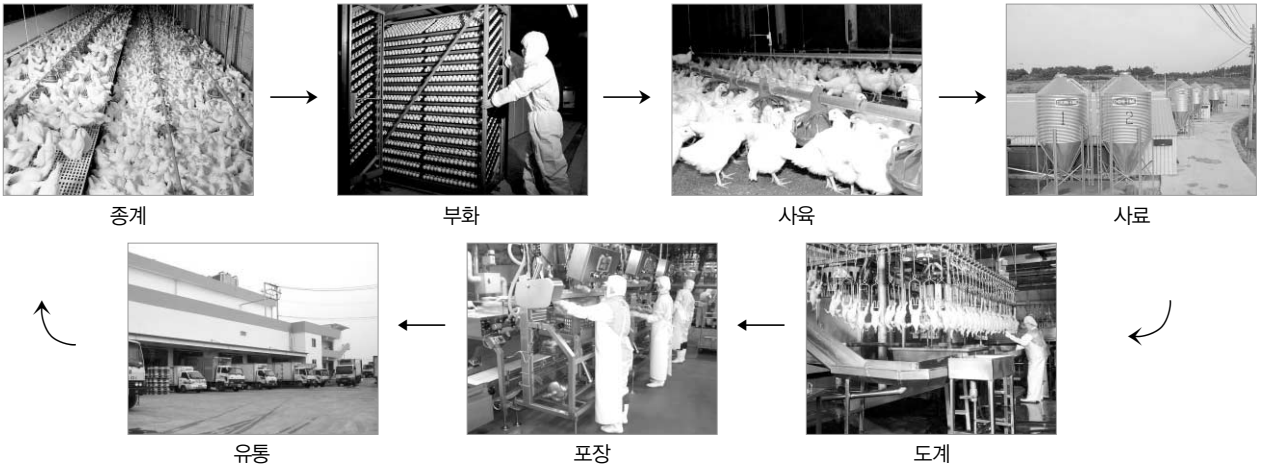
수평계열화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나의 체제 안에 모이게 함으로써 규모의 확대를 통해 이익의 창출을 모색하는 유형이며, 수직계열화는 회사가 하나의 주체가 되어 종계, 부화, 사육, 사료, 동약, 기자재 등 각 연관산업의 경영을 통합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능률을 향상시키는 유형이다.

수평계열화 사업은 집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계열화 사업구조로 평가받았으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수평계열화 사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도에 퇴출되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계열화 사업구조는 대부분이 도계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사업형태이며 사료, 기자재 등 일부 분야에 국한하여 관련산업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 제2의 변혁기로 들어선 육계 계열화 사업

80년대가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판을 마련한 제1변혁기였다면 제2의 변혁기는 2002년부터



시작된 도계장 HACCP과 연계된다.

도계장은 계열화 사업의 핵심요소로 2000년 이전까지 12개소에 불과하던 계열화 사업체는 2007년 현재 본회 회원사 21개사를 비롯 농협 목우촌 등 22개사가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도계장 41개 작업장 중 나머지 19개 도계장도 부분적으로 계열화와 연계를 가져오고 있다.

2000년 이후 임도계장들이 계열화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도계시설의 과잉으로 계열화 사업을 외면할 경우 도계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데다가 닭고기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관련업계의 예상은 HACCP이 의무화될 경우 전체 53개 도계장 중에서 절반 정도가 HACCP 인증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질적으로 몇몇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HACCP 대열에 합류했으며, 일부 이탈 도계장은

HACCP 의무화가 유보된 도압장(오리)으로 전환,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3. 제3의 변혁기, 포장유통 의무화

계열화 사업에 있어 HACCP이 제2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제3의 변화는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가 될 공산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2007년 현재 (주)하림, (주)동우, (주)체리부로, (주)마니키, (주)올품 등 5개사가 1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포장유통 의무화는 앞으로의 진행속도에 따라 국내 닭고기 산업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계장이 중심이 돼 진행된 국내 육계 계열화 사업은 육계생산, 도계, 가공, 유통 등 전방위에 걸쳐 막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포장유통 의무화는 경우에 따라 그동안에 닦아왔던 계열화 사업의 근간을 뒤바꿀 정도의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